

‘광주시교육청 방학 중 무상급식’ 겨울에도 못할 듯

돌봄교실 학생 중심 기존 방식 운영...학부모 부담

교육지원 대상 학생에 간식비 지원...3억원 편성

광주시교육청이 여름 방학 때 무산된 ‘방학 중 무상급식’을 겨울에 재추진했지만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논의를 중단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겨울 방학기간 유

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려 했던 점심 무상급식을 최종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학 중 급식은 초등 돌봄교실을 중심으로

학교별 도시락 지급·개인도시락 지원 등 기존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겨울방학 초등 돌봄교실에 참여 학생은 현재 6159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점심급식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지급한다.

교육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별 수요를 파악해 시교육청이 간식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겨울 방학에도 무상급식은 추진되지 않지만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 여름 방학 때 재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 여름 방학기간 무상급식을 시범 실시한 광주교대부설초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9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겨울방학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9명이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방학 중 무상급식은 이정선 교육감의 주요 공약으로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여름방학부터 추진하려 했지만 교육단체가 준비부족·급식환경 열악 등의 이유로 반발해 무산됐다.

이 후 시교육청은 시범운영으로 정책을 바꾸고 초교 1곳, 공립유치원 10곳에서 방학 중 무상급식을 운영했다.

시교육청은 설문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번 겨울방학기간 전면실시를 목표로 급식종사자·교육단체 등과 협의에 나섰지만 각 단체들이 불참해 논의를 하지 못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무상급식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교육단체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불참에 이번 겨울방학 급식도 돌봄교실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여름방학에는 실시될 수 있도록 의회, 직능단체, 노동조합, 학부모, 학생 등과 협의회를 구성해 재논의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재환기자



‘계묘년 토끼와 함께’

28일 서울 월드컵공원에 높이 8m 여세 토끼가 전시돼 있다.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월드컵공원과 문화비축기지에서 겨울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한 색다른 볼거리로 2023년 새해 소망을 염원하는 특색있는 토끼 조형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광주서 “민주주의 퇴행 시대...다시 싸워야 할 때” 호소

“檢, 하나회 만들어...민주주의 과거로”
 “이재명 죽인다고 무능 안 가려져”

광주 송정매일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주의가 숨쉬기 점점 어려워지는 퇴행의 시대가 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

시장에서 열린 ‘검찰 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에서 “지금 검찰이 하나회를 만드는 것 아닌가.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송정매일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난 뒤 “여러분 왜 이재명을 지키자고 말씀하나. 제가 여러분을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이 죽으면 끝인가. 또 다른 이재명이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편은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

는 죄도 만들어 탈탈 털다가 먼지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게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인가”라며 자신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가 완전히 망가지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이 나라와 민주주의, 우리 이웃과 가족을 지키자”며 ‘독재 정권’과 ‘야당 탄압 수사’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경제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근처로 날아와 온갖 첩보 활동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며 “(정부가) 하려고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데, 불안해서 살겠나”라고 지적했다.

의원들도 검찰의 ‘야당탄압 정적 죽이기’에 맞서 민주당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저는 야당탄압 정적 죽이기를 검찰 수사에 응하지 마시라고 (이 대표에게) 권고드렸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내가 뭐 쟁길 것도 없고 이미 경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된 사건인데, 당당하게 가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정승호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오픈 전 배달 뛰는 자영업자
 ‘퇴근 후 온라인 알바’ 직장인
 율 3분기까지 가구주 부업자 37만명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정모씨(38)는 얼마 전부터 가게를 오픈하기 전까지 배달 대행 일을 한다. 겨울철이라 맥줏집을 찾는 손님이 적은 데다 최근 대출금리와 물가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오전 11시께부터 장사 준비를 시작하는 오후 4시 사이 부업에 나선 것이다. 정씨는 “임대료와 가족 생활비를 벌려고 배달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부담이 높아져, 정씨처럼 부업 전선에 뛰어드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3분기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 가운데 부업을 하는 이들은 36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만7000명(11%) 늘었다. 전체 부업자(54만7000명)중 67.3%가 가구주다.

물가가 꾸준히 치솟고 금리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자영업자들까지도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고 있다.

노원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씨(37)도 남은 시간을 쪼개 부업을 하고 있다. 박씨는 “아이 학원비는 부담 한 것으로 내고 있다”며 “지금은 편의점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2년째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43)도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는 이들이 주로 샐러드 가게를 찾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타격이 크다”며 “대출 이자도 내고 생활비에도 쓰려고 올해 초부터 주 3일씩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IT업체에 다니는 직장인 오모(36)씨는 지난해 전자책을 출판해, 한 달에 400만원 가량 벌었다고 한다.

오씨는 “전자책은 종이책을 출판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다. 작은 기술만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그 노하우를 팔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씨(35)는 ‘취업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봐주면서 부업을 하고 있다. 건당 1만5000원씩 받아서 이번 달에는 50만원을 넘겼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책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